

광주·전남 大해부

<2> 일자리 도시 광주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작년 취업자 10명중 7명 힘든 타향살이

2 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어디에서 일하나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의 지난해 2월 졸업자는 72명. 이들 중 취업자는 54명으로, 취업률은 88.5%에 이른다. 전남대 전체 취업률이 5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취업률이다.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의 지난해 취업률도 86.7%로, 학교 전체 취업률 63.6%보다 월등히 높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다, 쏟아져나오는 학교 졸업생들과의 경쟁 속에 취업한 이들은 도대체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까.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 졸업자와 조선대 선박시스템공학부,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등 광주·전남 주요대학 졸업자 취업자들을 만나봤다.

광주·전남 일자리 없어 대부분 타지역으로 "연봉 조금 덜 받더라도 고향서 일하고 싶어"

◇타향살이 하는 지역대학 졸업자들=광주일보가 지역 주요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취업자들 상당수는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다.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연고도 전혀 없이 외로움을 달래며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유, 의외로 단순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해외영업팀의 서성우(29·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씨 근무처는 서울이다. 서씨는 "광주·전남 산업 기반이 빈약한 탓에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찾으려면 (광주·전남)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씨와 같은 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조선해양주에 생산관리(사무직)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상현(29)씨의 직장은 거제도에 있다.

매주 광주를 찾은 정도여서 고향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다. 노씨는 "광주·전남에 제조업을 둔 기업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부족하고 채용 인원도 적어 공대생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에서 배관·시공 분야를 맡고 있는 홍원석(29·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씨의 근무처도 광주다. 한달에 2번 정도 광주·전남을 찾으면서 쓰는 교통비만 대략 20만원이 넘는다. 이의 정성우(GM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씨는 보령에서, 박상희(29·LG디스플레이)씨는 구미에서, 김원식(29·삼성중공업)씨는 거제도, 박종원(29·쿠루전자)씨는 양산 등에서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전남대 기계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뒤 취업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이 가능한 10명 중 7명이 직업을 찾아 고향을 떠난 것이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와 경우 지난해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한 32명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 직장을 둔 졸업생들이 13명이나 된다. '대기업 병(病)'과도 사뭇 다르다. 일할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연봉이 다소 낮더라도 지역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소하겠다는 취업자들도 많다. 이들은 "대기업은 커녕 '괜찮은 중소기업' 찾기도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한 중소 전기설비회사에 근무하는 이모(29)씨는 "광주·전남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었다면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들은 아예 "광주·전남에서는 전공을 살릴 수도, 괜찮은 비전공 분야 직장 찾기도 쉽지 않지 않느냐"고 털어놓는다.

기업들의 명예퇴직과 구조조정 바람으로 지역 고용 시장은 더욱 썰렁해질 가능성이 많다. KT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천여명의 명예퇴직을 확정했으며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등의 구조조정 등도 암울한 소식이다.

그나마 국가공무원 채용 또한 지난해 3천291명에서 올해 2천514명으로 23.6%(777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정한 직장, 열악한 인프라=인문대 졸업생들의 경우 더 심하다. 학습지 교사 등 미래가 불안정한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많고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관련 인프라도 열악한 게 현실이다.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한 쇼핑몰에 취업한 신희영(여·27)씨는 "광주·전남에서는 전공을 살릴만한 직장이 전무하다"고 했다. 자취비용으로 한달에 30만~50만원 정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성 일자리 창출도 큰 과제다.

전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은행에 취직한 김현수(여·28)씨는 "지역 대학 졸업생들 중 여성 취업률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면서 "금융권을 제외하면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금융권 경쟁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올 상반기 1행원 원서 접수에서 7천명이 몰려 70대 1을 기록했고 지난해 광주은행 입사경쟁률은 90대 1에 이른다.

문화적 인프라도 열악하다. 한 수도권 기업 취업자는 "2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문화·자극·시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대신 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다"고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취업박람회에 몰려든 지역 4년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들. 광주일보가 지역 내 4년제 대학 일부 학과를 선정해 졸업한 취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직자 중 상당수가 지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지용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작년 '괜찮은 일자리' 1천여개 사라졌다

사업장 50여곳 도산·주요 기업들 구조조정도 잇따라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일자리 1천여개가 사라졌다. 가뜩이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나마 임금이나 복지 등이 비교적 나은 대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도산 처리된 사업장은 모두 50곳으로, 이로 인해 884명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노동청은 해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한 업체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더 많

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잇따랐다.

에어컨 제조 전문업체인 캐리어(여)의 경우 지난해 모두 280명을 구조조정했다. 240명은 명예퇴직 형식으로, 40명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인원을 줄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에도 373명의 인력 구조 조정을 거쳐 일자리를 축소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해 노조와 협상을 거쳐 정원 재조정 방식으로 497명의 자리를 잃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또 전 사무직에 대해 1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구

조조정을 시행키로 해 일자리는 더욱 적어질 전망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지난해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모두 140명의 자리를 잃었다.

콜센터도 많이 사라졌다. 동양화재·템피모어·현대캐피탈, 아이엔지생명, AIA아메리칸생명 등 광주시가 유치했던 5개사 업체가 사업장이 정리되면서 콜센터 일자리도 지난 2008년 6천675석에서 지난해 6천427석으로 248개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사 등 구조조정에 따라 대우·삼능·대한·C&C중공업 등 지역 중견 건설·조선사도 유동성 부족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일자리가 축소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메가박스

| | | |
|-----|-------------------|------|
| 1관 | 용서는 없다(18세) | 최고급관 |
| 2관 | 전우치(12세) | |
| 3관 | 설복홀츠(12세) | |
| 4관 | 아바타(12세) | |
| 5관 | 용서는 없다(18세) | |
| 6관 | 전우치(12세) | |
| 7관 | 아스트로보이-아름의 귀환(전제) | |
| 8관 | 더로드(15세) | |
| 9관 |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 |
| 10관 | 아바타(12세) | |

• 어프를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권결제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가 수 있다면 그것은 분노가 아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 | |
|-----|----------------------------|
| 1관 | 전우치(12세)/나인(15세) |
| 2관 | 설복홀츠(12세) |
| 3관 | 엘빈과 슈퍼밴드2(전제)/전우치(12세) |
| 4관 | 전우치(12세) |
| 5관 | 아스트로보이-아름의 귀환(전제)/더로드(15세) |
| 6관 | 아바타(12세) |
| 7관 | 아바타(12세)/용서는 없다(18세) |
| 8관 |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
| 9관 | 용서는 없다(18세) |
| 10관 | 아바타(12세) |

필드사할 영화사람 • 메: www.joycnc.com / 1588-7941
상무점 (삼부동원래 이미지 사이) 메남점 (무역화관앞)

스티븐스필메그의 중격미스타리 와제적!

1588-7941 상무점원래 병행-(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 | |
|-----|---------------------------|
| 1관 | 나인(15세)/아스트로보이-아름의 귀환(전제) |
| 2관 | 용서는 없다(18세) |
| 3관 | 전우치(12세) |
| 4관 | 더로드(15세) |
| 5관 | 용서는 없다(18세) |
| 6관 | 2012(12세) |
| 7관 | 아바타(12세) |
| 8관 | 아바타(12세) |
| 9관 | 전우치(12세) |
| 10관 | 설복홀츠(12세) |

• 500여대 넘는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수영장 269-5757 • 해미 놀이장 262-0925
• 해미 골프장 251-5060 • 해미 닭구양

전세계를 사로잡은 인류 마지막 사생활!

고려사할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한 하미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 | |
|----|---------------------------|
| 1관 | 아바타(12세) |
| 2관 | 아빠가여자를 좋아해(12세) |
| 3관 | 용서는 없다(18세) |
| 4관 | 웨딩드레스(전제)/ 파라노말 액티비티(12세) |
| 5관 | 설복홀츠(12세) / 더로드(15세) |
| 6관 | 아름의 귀환(전제)/웨딩드레스(전제) |
| 7관 | 전우치(12세) |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극장 사우나(오전6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 | |
|----|-----------------|
| 1관 | 아빠가여자를 좋아해(12세) |
| 2관 | 아바타(12세) |
| 3관 | 아바타(12세) |
| 4관 | 용서는 없다(18세) |
| 5관 | 설복홀츠(12세) |
| 6관 | 용서는 없다(18세)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소 옆 호남타워주변) - 단, 입장권 구매 고려에 한함

최고의 가족 영화

최고의 가족 •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 •
총상영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